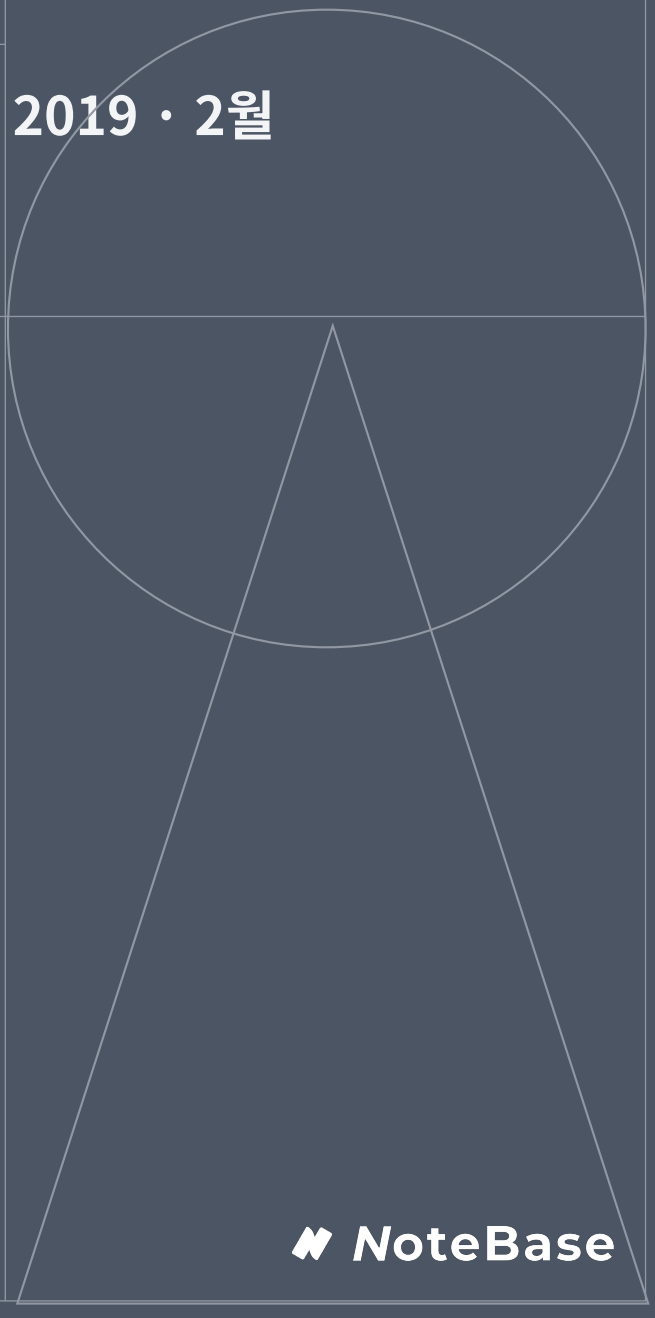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2월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2월

문 1. 효(孝)와 관계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① 斑衣之戱
② 斷機之戒
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효와 관련된 고사성어와 학문 권계에 관한 고사성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효 관련 성어는 부모를 공경하거나 그리워하는 행동이 핵심이다.
반의지희는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한 효행이고, 육적회귤은 어머니께 드리려고 귤을 품은 효행이며, 망운지정은 타향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정이다.
단기지계는 맹자의 어머니가 베를 끊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잘못을 경계한 말이므로 효가 아니라 학문 권계의 뜻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반의지희는 노래자가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려 부모를 즐겁게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대표적인 효 관련 성어이다.
2번 X: 단기지계는 맹자의 어머니가 베 짜던 실을 끊으며 배움을 중도에 그두면 안 된다고 경계한 말이다. 틀린 표현은 효와 관계된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학업의 중단을 경계하는 가르침과 관계된 성어이다.
3번 O: 육적회귤은 육적이 어머니께 드리려고 귤을 품고 갔다는 고사이므로 부모를 생각하는 효성과 직접 연결된다.
4번 O: 망운지정은 객지에서 부모가 있는 고향 쪽의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이므로 효성과 관련된 정서를 나타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번의 단기지계는 어머니가 등장하므로 효와 관련된 말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성어의 초점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 배움의 중단을 경계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어를 볼 때 부모를 위해 한 행동이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핵심이면 효 관련으로 본다. 학업, 처세, 경계의 교훈이 중심이면 효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반의지희·육적회귤·망운지정은 효, 단기지계는 학문 권계이다.

NoteBase

문 2.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 : 시름
② 반의 관계(antonymy) - 볼록 : 오목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 : 손자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 : 얼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부분 관계의 뜻을 구별하고 제시된 단어쌍이 그 의미 관계에 맞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의 관계는 뜻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말의 관계이다.
반의 관계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말의 관계이다.
상하 관계는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상위어·하위어의 관계이다.
부분 관계는 전체와 그 부분이 연결되는 관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심과 시름은 모두 걱정이나 시달림을 뜻하는 비슷한 말이므로 동의 관계에 맞는다.

② O
볼록과 오목은 모양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므로 반의 관계에 맞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하 관계 - 할아버지 : 손자'이다.
상하 관계는 동물 : 개, 과일 : 사과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해야 한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가 아니므로 제시된 연결이 옳지 않다.

④ O
코는 얼굴의 한 부분이므로 코 : 얼굴은 부분 관계에 맞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할아버지와 손자도 위아래 세대이니 상하 관계'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상하 관계의 '상하'는 세대나 서열이 아니라 의미 포함 관계를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미 관계 문제에서는 두 말이 서로 비슷한지, 반대인지, 포함하는지, 부분과 전체인지부터 본다. 한쪽이 다른 쪽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상하 관계이고, 사람 사이 호칭이나 세대 차이는 상하 관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상하 관계는 포함 관계이고, 부분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다.

NoteBase

문 3. <보기>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보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 '맡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된 발음 사례에서 실제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와 그 결과 음운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판단 대상은 첨가, 탈락, 축약, 교체가 각각 몇 번 일어나는지이다.
음운 개수는 글자 수가 아니라 실제 소리값이 있는 음운 수를 센다.
따라서 각 사례는 변동 전 형태와 변동 후 발음을 나란히 놓고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라 음운 수가 늘 수 있다.
탈락과 축약은 둘 이상의 음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음운 수가 감소할 수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 보통 음운 수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적용 기준

이 문항은 각 사례를 보고 먼저 변동 유형을 빠짐없이 적어 낸 뒤, 그다음 변동 전후의 음운 수를 세어야 한다.
특히 선지의 '만 일어났다' 같은 단정 표현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ㄱ): O. '집일[짐닐]'은 /집일/에서 '이' 앞에 ㄴ이 덧나는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변동 전에는 소리값 있는 음운이 5개이고, 변동 후에는 6개가 되어 음운 수가 1개 늘어난다.
2번(ㄴ): X.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ㄺ/에서 /ㄹ/이 탈락한 뒤 남은 /ㄱ/이 뒤의 /ㅁ/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교체도 함께 일어난다. 틀린 표현은 '탈락만'이고, 올바르게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었다'이다.
3번(ㄷ): X. '뜻하다[뜨타다]'를 축약만으로 보면 부족하다. 학교 문법에서는 받침 /ㅅ/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 계열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고, 이어 /ㅎ/과 결합해 /ㅌ/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일어난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축약만'이고, 올바르게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었다'이다.
4번(ㄹ): X. '맏눈[만눈]'은 /ㄷ/이 뒤의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난 경우이다. 뒤의 /ㄴ/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교체가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음운 수도 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났고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는 결과 발음만 보고 변동을 하나로 단순화하면 틀리기 쉽다. ㄴ은 [당만]만 보고 탈락만 떠올리기 쉽고, ㄷ은 [뜨타다]만 보고 축약만 적기 쉽고, ㄹ은 [만눈]에서 두 음운이 모두 바뀐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받침과 다음 음절 첫소리가 만나는 사례는 원형의 음운을 먼저 적고, 변동을 한 단계씩 표시한 뒤, '만'이라는 말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음운 수를 전후로 세면 된다.

암기 포인트

첨가는 수를 늘릴 수 있고, 탈락과 축약은 수를 줄일 수 있으며, 교체는 대체로 수를 바꾸지 않는다.

NoteBase

문 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더라.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말이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인지, 다른 말을 꾸미는 부사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성분이고, 부사어는 용언이나 관형어, 다른 부사어를 꾸미는 성분이다.
이 문항에서는 ①의 '어머니의', ③의 '바로', ④의 '예쁜'이 뒤의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이고, ②의 '아주'만 뒤 말을 꾸미는 부사어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어머니의'는 체언 '말씀'을 꾸며 주는 말이므로 관형어이다. 틀린 판단은 이 예문을 '다른 하나'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관형어의 예이다.
2번 O: '아주'는 '새'를 꾸며 정도를 더해 주는 말이므로 부사어이다. 나머지 ①, ③, ④는 모두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이므로 ②가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이다.
3번 X: '바로'는 명사 '옆집' 앞에서 그 명사를 한정하는 말이므로 관형어이다. 틀린 판단은 이 예문을 '다른 하나'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①, ④와 같은 관형어의 예이다.
4번 X: '예쁜'은 체언 '꽃'을 꾸며 주는 말이므로 관형어이다. 틀린 판단은 이 예문을 '다른 하나'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관형어의 예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바로'를 부사로만 익혀 두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옆집'이라는 명사를 직접 꾸미므로 관형어로 본다. ②의 '아주'는 명사가 아니라 '새'를 꾸민다는 점에서 부사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이 바로 뒤의 명사를 꾸미면 관형어로, 용언이나 관형어의 뜻을 더해 주면 부사어로 판단한다. 꾸밈을 받는 말이 체언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명사를 꾸미면 관형어, 명사 이외의 말을 꾸미면 부사어이다.

NoteBase

문 5.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에 실현되는 높임법을 분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예)와 같이 이들 높임법이 문장에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와 '-'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수가 동생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①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다.
(+주체, -객체, -상대)

② 영희가 할머니께 과자를 드렸다.
(-주체, +객체, +상대)

③ 어머니께서 영희에게 과자를 주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④ 어머니께서 할머니께 과자를 드리셨습니다.
(+주체, +객체, +상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각각 어떤 문법 요소로 실현되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 등이 쓰인다.
객체 높임은 서술의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께', '드리다' 같은 특수 어휘가 쓰인다.
상대 높임은 문장을 듣는 상대를 어떤 등급으로 대우하는지가 종결어미에 드러나는 방식이다. '-습니다'뿐 아니라 해라체 '-다'도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 형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상대'이다. '어머니께서', '주셨-'으로 주체 높임이 나타나고, 종결형 '주셨다'의 '-다'는 해라체이므로 상대 높임법도 실현된다. 올바르게는 '(+주체, -객체, +상대)'이다.
② O: '영희가'에는 주체 높임이 없으므로 -주체이다. '할머니께', '드리-'는 객체 높임 요소이므로 +객체이다. 종결형 '드렸다'의 '-다'는 해라체이므로 +상대이다.
③ O: '어머니께서', '주셨-'으로 주체 높임이 나타난다. 객체를 높이는 표현은 없으므로 -객체이다. 종결형 '-습니다'는 상대를 높이는 하십시오체이므로 +상대이다.
④ O: '어머니께서', '드리시-'로 주체 높임이 나타나고, '할머니께', '드리-'로 객체 높임도 나타난다. 종결형 '-습니다'는 하십시오체이므로 +상대이다.

오답 포인트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상대 높임을 '습니다체'에서만 찾는 것이다. ①과 ②의 '-다'도 종결어미를 통해 청자 대우 등급이 드러나므로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와 특수 어휘는 주체 높임·객체 높임으로 보고, 문장 끝 종결어미는 먼저 상대 높임으로 판단한다.
'-습니다'만이 아니라 '-다'처럼 해라체 종결도 상대 높임법의 실현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주체는 '께서·-시-', 객체는 '께·드리다', 상대는 문장 끝 종결어미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6. <보기>는 두보의 시 「곡강(曲江)」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기>
조정에서 돌아오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
매일 강어귀에서 만취되어 돌아오네.
술빚은 늘 가는 곳마다 있건만,
인생 ( )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꽃 속으로 날아드는 나비는 그윽하고,
물 위로 꽁지를 닿을 듯 나는 잠자리는 유유하네.
내 전하고픈 말은 풍광과 함께 흐르노니,
잠시나마 서로 즐기고 부디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라네.

① 오십
② 육십
③ 칠십
④ 팔십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두보 「곡강」의 유명한 시구인 '인생칠십고래희'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래희는 '예로부터 드물다'는 뜻이고, 두보의 시구 '인생칠십고래희'는 '사람이 일흔까지 사는 일은 예로부터 드물다'는 의미이다.
이 문항의 결정 차이축은 빈칸에 들어가는 수치가 무엇인지이며, 핵심 키워드는 '칠십'과 '고래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오십'이 틀린 표현이다.
두보의 원구는 '인생칠십고래희'이므로 올바르게는 '칠십'이 들어가야 한다.

② X
'육십'이라는 수치가 틀렸다.
올바른 시구는 '인생칠십은 예로부터 드물구나'이다.

③ O
두보 「곡강」의 널리 알려진 구절이 바로 '인생칠십고래희'이므로 빈칸에는 '칠십'이 들어간다.

④ X
'팔십'은 원문의 수치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팔십'이 아니라 '칠십'이다.

오답 포인트

숫자 선택지만 제시되어 있어 막연한 장수의 이미지로 더 높은 연령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현대의 평균수명이 아니라 한시의 원문 표현을 묻는 문제이므로 '고래희'와 짝을 이루는 수치가 칠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나 한시의 빈칸 추론 문제는 내용 일반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널리 굳어진 원구를 먼저 떠올려 판단한다. '고래희'가 보이면 '인생칠십고래희'를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래희는 '인생칠십고래희'와 함께 외워지는 표현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통적 실체이원론에서 몸과 마음을 어떤 관계로 보는지, 그리고 각각이 물리적 실체인지 비물리적 실체인지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체이원론: 몸과 마음을 서로 다른 두 실체로 보고, 서로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 결정 차이축: 독립적 존재 가능 여부 / 키워드: 분리, 독립
몸: 크기, 무게, 부피, 위치 같은 물리적 속성을 지닌 실체이다. / 결정 차이축: 물리적 속성 보유 여부 / 키워드: 물리적 실체
마음: 물리적 속성을 지니지 않는 비물리적 실체이다. / 결정 차이축: 물리적 속성 결여 / 키워드: 비물리적 실체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기에서는 마음이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라고 하였으므로, 몸과 마음을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 관계로 보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올바르게는 몸과 마음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실체라고 보아야 한다.
② X: 보기에서는 몸은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몸은 물리적 실체이다. 틀린 표현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이다. 올바르게는 몸은 물리적 실체이고 마음이 비물리적 실체이다.
③ O: 보기에서 몸이 마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직접 밝혔다. 실체이원론은 몸과 마음이 서로 독립된 실체이므로 마음이 없는 몸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④ X: 보기에서는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틀린 표현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이다. 올바르게는 실체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도 가능하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독립'이 아니라 '불가분'으로 뒤집거나, 몸과 마음의 물리성 여부를 서로 바꾸는 데 있다. 특히 ①의 "불가분"과 ④의 "불가능"은 보기의 핵심 서술을 정반대로 바꾼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몸과 마음 관련 이론이 나오면 먼저 두 실체를 분리 가능한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어느 쪽이 물리적 속성을 가지는지 본다. 지문에 '몸 없이도', '마음 없이도' 같은 표현이 있으면 독립 가능성을 묻는 선지부터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실체이원론은 몸은 물리적, 마음은 비물리적이며 둘은 서로 독립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NoteBase

문 8.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① 파김치
② 짜임새
③ 주름살
④ 지름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끝까지 분석할 때,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여 형태소 수를 세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말이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나 전성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짜임새'를 '짜-임-새'로 분석하여 어간 '짜-', 명사형 전성 어미 '-임', 접미사 '-새'의 세 형태소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파김치'는 '파+김치'로 나뉘므로 형태소는 2개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많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파김치는 두 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이다.
② O: '짜임새'는 '짜-임-새'로 분석할 수 있어 형태소가 3개이다. 네 보기 가운데 형태소 수가 가장 많으므로 정답이다.
③ X: '주름살'은 '주름+살'로 나뉘므로 형태소는 2개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많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주름살은 두 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이다.
④ X: '지름길'은 이 문항의 분석 기준에서 '지름+길'로 나뉘므로 형태소는 2개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많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지름길은 두 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겉으로 보기에 '지름길'도 '지르-ㅁ-길'처럼 더 잘게 나뉠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현재 실제 단어 형성과 문항의 통상적 분석 기준에 따라 '지름+길'로 본다. 반면 '짜임새'는 '짜다'에서 온 '짜임'에 '-새'가 결합한 구조가 비교적 분명하여 형태소 수가 하나 더 많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단어를 어근끼리만 결합한 합성어인지, 어근에 접사나 전성 어미가 붙은 파생어인지 본다. 그다음 더 쪼갤 수 있는 명사형 전성 어미나 접사가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면 형태소 수를 안정적으로 셀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합성어는 보통 2개, 파생 요소가 한 번 더 보이면 3개까지 늘어난다. '짜임새=짜-임-새'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9. '欲速則不達，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① 첫술에 배부르랴.

② 내 코가 석 자다.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이 말하는 조급함과 눈앞의 작은 이익 추구의 폐해를 속담의 뜻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欲速則不達'은 일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도리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고, '見小利則大事不成'은 작은 이익이나 편의에 끌리면 큰일을 그르친다는 뜻이다. 판단 축은 처음이냐 늦음이냐가 아니라 조급한 처리와 눈앞의 이익 추구가 실패를 부르는가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첫술에 배부르다'에서 맞는 속담은 보통 '첫술에 배부르랴'이며, 처음부터 단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조급하게 서둘러 큰일을 그르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조급함의 폐해와 같은 뜻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성과를 바라기 어렵다는 뜻이다.
2번 X: '내 코가 석 자다'는 자기 사정이 매우 급하고 어려워 남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큰일을 망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속담을 성급한 처리의 경계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제 처지가 급박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3번 X: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정성과 공을 들여 쌓은 일은 쉽게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두름을 경계하는 말이 아니라 노력의 결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틀린 표현은 성급함의 부작용과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공들인 일의 안정성과 보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4번 O: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는 일을 빨리 해 보겠다고 바른 절차를 무시하면 결국 쓸모없게 된다는 뜻이다.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눈앞의 편의만 좇으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가장 잘 통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단번에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시간과 과정의 필요를 말할 뿐 성급함 자체의 해로움을 말하지 않는다. 원문은 서두름과 작은 이익 추구가 실패를 부른다는 경계에 초점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 성어와 속담을 연결할 때는 먼저 핵심 정서를 잡는다. 이 문항처럼 '서두름', '편의', '작은 이익'이 보이면 조급한 처리의 폐해를 경계하는 속담을 찾고, 단순히 처음의 어려움이나 개인 사정을 말하는 속담은 제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欲速則不達'은 서두르면 그르친다는 뜻이고,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는 절차를 건너뛰면 도리어 못 쓴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보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① 사소함
② 괴로움
③ 기다림
④ 생각함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복된 표현이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부각하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복: 같은 말이나 비슷한 구조를 되풀이하여 의미와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 결정 차이축: 실제로 같은 표현이 다시 나타나는가 / 키워드: 되풀이, 강조
주제어: 작품의 중심 생각이나 정서를 담는 말이다 / 결정 차이축: 중심 의미인가, 반복으로 부각된 표현인가 / 키워드: 중심 정서, 핵심 어휘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O
'사소한 일'과 '그 사소함'이 되풀이되어, 평범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화자의 깊은 애정과 호명의 매개가 됨을 부각한다. 반복을 통해 화자의 애틋한 정서가 강조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괴로움'을 반복을 통해 정서를 강조한 표현으로 본 판단이다. '괴로움'은 그대가 처한 상태를 한 번 제시한 말일 뿐, 반복으로 화자의 정서를 전면화한 핵심 표현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반복을 통해 강조된 표현은 '사소함'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기다림'을 이 보기의 주된 반복 강조 표현으로 본 판단이다. '기다림'은 화자의 사랑의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말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대표적 반복 강조어로 잡아야 할 대상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평범한 일을 사랑의 징표로 바꾸어 보여 주는 '사소함'이 반복되어 정서를 강조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생각함'을 반복 강조의 중심 표현으로 본 판단이다. '생각함'은 화자가 그대를 떠올리는 행위를 드러내는 말이지만, 정서를 부각하는 핵심 반복어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같은 말을 되풀이해 감정을 부각한 표현은 '사소함'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기다림'처럼 작품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를 곧바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서의 내용 자체보다, 주된 표현 기법인 반복으로 특히 부각된 어휘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반복 표현 문제는 같은 말이 실제로 되풀이되는지 먼저 표시하고, 그 반복이 어떤 감정이나 의미를 크게 만드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중심 정서를 나타내는 말과 반복으로 전면화된 말을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반복법 문제는 '무슨 감정인가'보다 '무슨 말이 되풀이되었는가'를 먼저 본다. 이 문항에서 정서를 반복으로 강조한 표현은 '사소함'이다.

NoteBase

문 11.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보기>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②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③ 이문구의 『우리동네 김씨』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에 드러난 공간과 정서를 근거로 <보기>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같은 시대 현실을 다룬 작품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보기>는 '하꼬방', '잿더미', '울상이 된 그림자' 같은 시어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의 황폐한 도시 현실과 전후의 상처를 드러낸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1960년대 산업화 시기 지식인의 허무와 자기기만을 다룬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떠돌이 인물들의 현실을 다룬다.
이문구의 『우리동네 김씨』는 산업화 속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서민 현실을 보여 준다.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후 세대의 비극을 다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전후 폐허의 도시 현실이 아니라 1960년대의 근대화 속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내면적 공허를 중심으로 한다. 틀린 표현은 '<보기>와 같은 전후 현실을 다룬 작품'으로 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1960년대 산업화 시기 지식인의 내면 의식을 다룬 작품'이다.

② X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보다 1970년대 산업화로 고향과 생활 기반을 잃은 인물들의 유랑을 그린다. 틀린 표현은 '전후 문학과 같은 시대 배경'이라는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산업화 시기의 소외된 민중 현실을 다룬 작품'이다.

③ X
이문구의 『우리동네 김씨』는 전쟁 직후 도시 빈민의 삶이 아니라 산업화 이후 농촌의 변화와 공동체 해체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틀린 표현은 '<보기>와 같은 전쟁 직후의 현실'이라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산업화 속 농촌 현실을 다룬 작품'이다.

④ O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젊은 세대의 비극을 다룬 전후 소설이다. <보기> 역시 전쟁 이후의 황폐한 삶과 상처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므로 시대적 배경이 같다.

오답 포인트

선지의 작품들이 모두 현대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막연히 '비슷한 현실 비판 작품'으로 묶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현실 비판 일반이 아니라 '전후', '산업화', '농촌 해체'처럼 작품이 놓인 시대 배경을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대적 배경을 묻는 문제는 작품의 분위기만 보지 않고 배경 표지를 먼저 잡아야 한다. <보기>처럼 '하꼬방', '잿더미'처럼 전쟁의 폐허를 떠올리게 하는 시어가 나오면 전후 문학으로 좁히고, 산업화·이농·도시화 표지가 나오면 1960~70년대 산업화 문학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전후의 폐허와 상처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 산업화의 소외와 해체는 『무진기행』·『삼포 가는 길』·『우리동네 김씨』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12.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① 손쉽다
② 맛나다
③ 시름없다
④ 남다르다

정답 2,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고, 통사적 합성어 안에서도 주어+서술어형과 부사어+서술어형을 가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 내부 결합 관계가 문장의 통사 구조와 대응하는 합성어이다.
주어+서술어형은 '손이 쉽다', '시름이 없다'처럼 앞말이 주어 구실을 한다.
부사어+서술어형은 '남과 다르다'처럼 앞말이 부사어 구실을 한다.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새 단어가 된 말인데, '맛나다'는 '-나다'를 접미사로 처리하면 파생어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손쉽다'는 '손이 쉽다'에 대응하는 주어+서술어형 통사적 합성어이다. 틀린 부분은 이 말을 다른 형성 체계로 본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③과 같은 계열로 본다.
② O: '맛나다'는 '맛+접미사 -나다'로 분석하면 파생어가 되어 ①, ③과 형성 체계가 다르다. 다만 '맛이 나다'에 대응하는 통사적 합성어로도 볼 수 있어 시험에서는 복수 정답이 인정된 경우이다.
③ X: '시름없다'는 '시름이 없다'에 대응하는 주어+서술어형 통사적 합성어이다. 틀린 부분은 이 말을 다른 형성 체계로 본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①과 같은 계열로 본다.
④ O: '남다르다'는 '남과 다르다'에 대응하는 부사어+서술어형 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라는 점은 ①, ③과 같지만 통사 구조가 달라 형성 체계가 다른 것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합성어와 파생어만 기계적으로 가르다가 ④를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은 통사적 합성어 내부에서도 앞말이 주어인지 부사어인지를 보게 만든다. 반대로 ②는 '-나다'를 본용언으로 볼지 접미사로 볼지에 따라 분석이 갈려 복수 정답이 인정되는 함정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명사와 용언이 결합한 말은 먼저 파생어 가능성이 있는 접사가 붙었는지 본다. 합성어라면 다시 문장으로 풀어 앞말이 주어인지 부사어인지를 확인하면 형성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손쉽다·시름없다는 주어+서술어형, 남다르다는 부사어+서술어형, 맛나다는 '-나다'를 접미사로 보면 파생어가 된다.

NoteBase

문 13.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나)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라) 이화우(梨花雨) 흣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흣노매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나) - (가) - (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 시가 작품을 갈래와 시대에 따라 앞선 시기부터 뒤 시기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2월

올바른 순서

1. (다) 황조가 - 고구려 유리왕대의 고대 가요이다.
2. (나) 제망매가 - 통일 신라 향가이다.
3. (가) 송인 - 고려 시대 한시이다.
4. (라) 시조 - 조선 시대 시조이다.

왜 이 순서인가: 고대 가요가 가장 이르고, 그다음이 통일 신라 향가, 이후가 고려 한시, 마지막이 조선 시조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를 (다)보다 먼저 둔 점이 틀리다. (가)는 고려 시대 한시이고 (다)는 고구려의 고대 가요이므로 훨씬 앞선 작품은 (다)이다.
틀린 표현: (가) - (다)
올바르게는: (다) - (나) - (가) - (라)이다.

② X
(라)를 (나)보다 먼저 둔 점이 틀리다. (나)는 통일 신라 향가이고 (라)는 조선 시조이므로 (나)가 더 앞선다.
틀린 표현: (다) - (라) - (나)
올바르게는: (다) - (나) - (가) - (라)이다.

③ X
(가)를 (나)보다 먼저 둔 점이 틀리다. (가)는 고려 시대 작품이고 (나)는 통일 신라 향가이므로 신라 작품인 (나)가 먼저 와야 한다.
틀린 표현: (다) - (가) - (나)
올바르게는: (다) - (나) - (가) - (라)이다.

④ O
(다) 황조가, (나) 제망매가, (가) 송인, (라) 시조의 순서로 배열하면 고대 가요 → 향가 → 고려 한시 → 조선 시조가 되어 시대순 배열이 정확하다.

오답 포인트

(가)를 한시라는 형식만 보고 조선 한시로 착각하거나, (나)의 향가를 막연한 고대 작품으로만 보고 (다)와의 선후를 뒤섞기 쉽다. 갈래와 작가층을 함께 떠올리면 시대 판정이 쉬워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문학 시대 배열 문제는 작품을 보자마자 갈래와 대표 시대를 먼저 붙여 판단한다.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경기체가·한시, 조선 시조·가사처럼 큰 시대 묶음을 먼저 세우면 세부 배열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고대 가요 → 향가 → 고려 한시 → 조선 시조의 큰 흐름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NoteBase

문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가) 알-: 알+는 → [아:는]
(나) 안-: 안+고 → [안:꼬]
(다) 아름답-: 아름답+은 → [아름다운]
(라) 먹-: 먹+는 → [멍는]

① (가)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② (나)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③ (다)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④ (라)는 국어에 'ㄱ'과 'ㄴ'이 연속될 때 'ㄱ'이 비음 'ㅇ'으로 발음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규칙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소의 교체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구분하고,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자동적 교체는 음운 환경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교체이다. 비자동적 교체는 같은 환경이라고 해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소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교체이다. 판단의 핵심은 '무엇이 바뀌는가'와 '그 변화가 같은 환경에서 필수적인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가) '알+는→[아:는]'은 용언 어간 받침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예이다. 이런 ㄹ 탈락은 해당 활용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므로 자동적 교체로 볼 수 있다.
2번: X. 틀린 부분은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된다'는 표현이다. (나)에서는 어미 전체가 [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받침 ㄴ 뒤에서 어미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ㄲ]로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고'가 언제나 [꼬]가 되는 것처럼 일반화하면 틀리다.
3번: X. 틀린 부분은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라는 표현이다. (다)는 어미가 바뀐 것이 아니라 어간 '아름답-'의 ㅂ이 우로 바뀌는 비자동적 교체이다. 올바르게는 '특정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이 어미 앞에서 바뀌어 아름다운이 된다'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비자동적 교체의 예'라는 표현이다. (라) '먹+는→[멍는]'은 받침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이므로 반드시 일어나는 자동적 교체이다. 올바르게는 '음운 환경 때문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오답 포인트

3번처럼 실제로 바뀌는 형태소를 잘못 잡으면 자동성과 비자동성을 함께 틀리기 쉽다. 2번은 된소리되기를 보고 맞다고 느끼기 쉽지만, 바뀌는 대상이 어미 전체인지 첫소리 하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교체된 형태소가 어간인지 어미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같은 음운 환경이면 예외 없이 반드시 바뀌는지 본다. 음운 환경이 강제하는 ㄹ 탈락, 비음화, 된소리되기는 자동적 교체로 보고, 특정 용언만 따로 바뀌는 ㅂ불규칙 활용은 비자동적 교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음운 환경이 강제하면 자동, 특정 형태소만 따로 바뀌면 비자동이다. ㄹ 탈락과 비음화는 자동, ㅂ불규칙 활용은 비자동이다.

NoteBase

문 1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꿴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솔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 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나뇨.”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규중칠우쟁론기」에서 의인화된 사물의 별칭과 역할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세요 각시는 바늘을 의인화한 존재이다. 옷을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만든다는 말이 직접 단서이다.
척 부인은 자를 의인화한 존재이다. 길이를 재고 재단의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한다.
교두 각시는 가위를 의인화한 존재이다. 천을 "버혀 낸다"는 표현이 단서이다.
능소능대는 작은 일과 큰 일에 두루 능하다는 뜻이지 몸집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뜻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O. 화자는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라고 하여 직접 바느질 기능을 내세운다. 이는 바늘을 의인화한 세요 각시의 말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이다. 화자는 "양우의 말이 불가하다",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이라고 하며 다른 벗들의 자랑을 깎아내린 뒤 자기 공을 앞세운다. 올바르게는 타인의 공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필요성을 강조한다.
3번: X. 틀린 부분은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능소능대는 재단에서 작은 일과 큰 일 모두에 능하다는 뜻이다. 올바르게는 대상의 크기 변화가 아니라 일 처리의 폭과 능숙함을 나타낸다.
4번: X. 틀린 부분은 "교두 각시"를 "인두"로 본 점이다. 척 부인은 자를 가리키지만 교두 각시는 천을 버혀 내는 가위를 가리킨다. 올바르게는 척 부인은 자, 교두 각시는 가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별칭만 외우면 헷갈리기 쉽고, 이 문항은 명칭보다 동작어가 핵심 단서가 된다. "뜨다·박다"는 바늘, "자혀내다"는 자, "버혀 내다"는 가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놓치면 4번 같은 선지에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산문에서 의인화된 사물 문제가 나오면 별칭보다 그 사물이 하는 동작을 먼저 확인한다. 바느질을 하면 바늘, 길이를 재면 자, 천을 자르면 가위처럼 기능어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세요 각시는 바늘, 척 부인은 자, 교두 각시는 가위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내가 책을 읽었다.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다) 우리가 산을 봅니다.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동문과 사동문, 능동문과 피동문의 대응 관계와 문장 성분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주동문은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하는 문장이고,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다.
능동문은 주어가 행위의 주체인 문장이고, 피동문은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문장이다.
사동문과 피동문에서는 원래 행위 주체가 부사어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나)의 '읽히셨다'는 '읽다'에 사동 접사가 붙은 사동사이고, (라)의 '보입니다'는 '보다'에 피동 접사가 붙은 피동사이므로 둘 다 파생어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필수적으로 제시된다'이다. (나)의 '나에게', (라)의 '우리에게'처럼 행위 주체에 해당하는 부사어는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성분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 주체가 부사어로 나타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이다.
3번: O. (나)의 부사어 '나에게'는 (가)의 주어 '내가'에 대응하고, (라)의 부사어 '우리에게'는 (다)의 주어 '우리가'에 대응한다. 행위 주체가 주어에서 부사어로 바뀐 것이다.
4번: O. '읽다'가 '읽히다'로 바뀌면 사동의 대상이 추가되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 '보다'가 '보이다'로 바뀌면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전환되어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리 구성이 달라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동문과 피동문에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 자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필수 성분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자주 나타난다'와 '반드시 제시된다'를 구별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동문과 피동문을 보면 먼저 원래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자리를 찾고, 그 뒤에 새로 나타난 부사어가 필수 성분인지 선택 성분인지 따져 본다. 선지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은 표현이 있으면 생략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사동문은 남에게 하게 하는 문장, 피동문은 남의 행동을 입는 문장이다.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대응 관계는 분명하지만 필수 성분은 아니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놈: '사람평칭' → '남자의 비칭'
(나) 겨레: '종친, 친척' → '민족, 동족'
(다) 아침밥 > 아침
(라) 맞비 > 장맛비

①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②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③ (다)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④ (라)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어휘의 통시적 변화에서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잔류, 형태 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의미 축소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범위가 이전보다 좁아지는 변화이다.
의미 확대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지는 변화이다.
의미 잔류는 복합어의 일부가 생략되어도 남은 성분에 전체 의미가 남아 있는 현상이다.
형태의 일부가 덧붙었다고 해서 의미가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더 구체화되어 의미가 좁아질 수도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가)의 '놈'은 원래 사람을 두루 가리키는 평칭이었는데 지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인다.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 전체'에서 '남자'로 좁아졌으므로 의미 축소 설명이 맞다.
2번 O: (나)의 '겨레'는 원래 종친, 친척을 가리켰으나 지금은 민족, 동족을 가리킨다. 혈연 중심의 가까운 범위에서 더 넓은 공동체 범위로 확장되었으므로 의미 확대 설명이 맞다.
3번 O: (다)의 '아침밥'이 '아침'으로 줄어도 '아침을 먹다'처럼 남은 성분이 원래의 전체 의미를 대신한다.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뒤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라는 설명이 맞다.
4번 X: 틀린 표현은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이다. '맞비'는 오래 오는 비를 뜻했고 '장맛비'는 장마 때 내리는 비를 뜻하므로, 형태가 덧붙은 뒤에도 의미가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의미가 더 구체화되어 축소된 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형태 변화가 보이면 의미 변화도 기계적으로 같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4번은 '덧붙이기'라는 형식만 보고 의미 불변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맞비'보다 '장맛비'가 의미 범위가 더 좁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옛말과 현재말의 의미 범위를 먼저 비교한 뒤,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부터 판단한다. 그다음 생략이면 전체 의미의 잔류 여부를, 덧붙이기면 의미의 유지인지 구체화인지 따져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범위가 좁아지면 의미 축소, 넓어지면 의미 확대, 줄인 말에 본뜻이 남으면 의미 잔류, 덧붙여 더 구체화되면 의미 축소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가 같은 조사 '와/과/하고'라도 문장에서 동반·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지,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 주는 접속조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부사격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서술어와의 관계를 드러내며 '함께, 같이, -처럼'의 뜻을 나타낸다.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묶는다. 이 문항에서는 '와/과/하고'가 '함께, 같이, -처럼'으로 풀이되면 부사격 조사이고, 두 명사를 나란히 잇는 기능이면 접속조사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뜬구름과 같은'의 '과'는 '뜬구름처럼, 뜬구름과 같이'로 풀이되므로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접속조사로 보면 틀리며, 올바르게는 부사격 조사로 본다.
2번: X. '영수하고 친하게'의 '하고'는 '영수와 함께'의 뜻이므로 동반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두 명사를 이어 하나의 성분으로 묶는 접속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보아야 한다.
3번: O. '수학과 영어를'의 '과'는 '수학'과 '영어'를 나란히 이어 주는 접속조사이다. 두 명사가 함께 목적어 구실을 하므로 다른 선택지의 부사격 조사와 성격이 다르다.
4번: X. '나와 그 친구는'의 '와'는 이 문장에서 '나와 함께'로 풀이되어 부사어 구실을 하므로 부사격 조사로 본다. 접속조사라고 보기 쉽지만, 올바르게는 '그 친구는 나와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로 이해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를 모두 접속조사로 묶어 버리기 쉽다. 그러나 ④는 '나와 함께'로 풀이되는지, 아니면 '나와 그 친구'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지는지를 문장 성분으로 따져야 한다. 이 문항은 그 미세한 해석 차이를 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 앞뒤의 명사를 먼저 본 뒤, 그 조사가 두 명사를 단순 연결하는지 확인한다. 연결이면 접속조사이고, '함께, 같이, -처럼'으로 바꾸어 자연스러우면 부사격 조사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와/과/하고’는 잇기이면 접속조사, ‘함께·같이·처럼’이면 부사격 조사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자내 샹해 ㉠날드려 닐오듸 둘히 머리 셰도록 사다가 흠씌 죽쟈 ᄒᆞ시더니 엇디ᄒᆞ야 나를 두고 자내 몬져 가시는 날ᄒᆞ고 ᄌᆞ식ᄒᆞ며 뉘 긔걸ᄒᆞ야 엇디ᄒᆞ야 살라 ᄒᆞ야 다 더디고 자내 몬져 가시는고 자내 날 향히 ᄆᆞᅀᆞ믈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히 ᄆᆞᅀᆞ믈 엇디 가지던고 ᄆᆡ양 자내ᄃᆞ려 내 닐오ᄃᆡ ᄒᆞᆫ듸 누어셔 이 보소 ᄂᆞᆷ도 우리ᄀᆞ티 서ᄅᆞ 에엿쎄 녀겨 ᄉᆞ랑ᄒᆞ리 ᄂᆞᆷ도 우리 ᄀᆞᄐᆞᆫ가 ᄒᆞ야 자내ᄃᆞ려 니ᄅᆞ더니 엇디 그런 이를 ᄉᆡᆼ각디 ㉢아녀 나를 ᄇᆞ리고 몬져 가시는고 자내 ㉣여히고 아ᄆᆞ려 내 살 셰업ᄉᆞ니 수이 자내 ᄒᆞᆫ듸 가고져 ᄒᆞ니 날 ᄃᆞ려 가소

① ㉠ 나를 따라서

② ㉡ 향하여

③ ㉢ 아니하여

④ ㉣ 여희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어의 조사·어미를 바탕으로 밑줄 친 표현을 현대어로 정확히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날드러'의 '-드러'는 대상 표시로 쓰여 '나더러, 나를 향하여'의 뜻이 된다.
'향희'는 '향하여', '아녀'는 '아니하여', '여희고'는 '여의고'로 풀이한다.
이 문항은 비슷한 소리만 따라 읽지 말고, 조사와 어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풀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날드러'는 '나를 따라서'가 아니라 '나더러' 또는 '나를 향하여'의 뜻이다. '따라서'는 동작의 추종 의미인데, 여기서는 말이 향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올바르게는 '나더러' 또는 '나를 향하여'이다.
② O. '향희'는 현대어 '향하여'로 풀이하는 것이 맞다. 방향이나 대상을 향한다는 뜻이 그대로 이어진다.
③ O. '아녀'는 '아니하여'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부정의 의미를 지닌 연결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④ O. '여희고'는 '여의고'의 뜻이다. 떠나거나 이별한다는 의미가 유지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날드러'의 소리만 보고 '나를 따라'처럼 잘못 끊어 읽기 쉬운 점을 노린 선지이다. 이 표현의 핵심은 '따름'이 아니라 '말이 향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어 해석 문제에서는 먼저 조사와 어미의 기능을 본다. '-드러'처럼 대상 표시가 나오면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의 뜻인지 확인하고, 부정형 '아녀'처럼 자주 쓰이는 형태는 통째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날드러'는 '나더러', '향희'는 '향하여', '아녀'는 '아니하여', '여희고'는 '여의고'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보기>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하고 물을 것이다.

① ㉠: 플롯(plot), ㉡: 왜?, ㉢: 그 다음엔?

② ㉠: 플롯(plot), ㉡: 그 다음엔?, ㉢: 왜?

③ ㉠: 테마(theme), ㉡: 언제?, ㉢: 왜?

④ ㉠: 테마(theme), ㉡: 그 다음엔?, ㉢: 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 그리고 각각이 독자에게 유도하는 질문을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토리: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한 서술이다. 결정 차이축은 시간의 흐름이다. 키워드는 '그 다음엔?'이다.
플롯: 사건을 인과관계로 조직한 서술이다. 결정 차이축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다. 키워드는 '왜?'이다.
테마: 작품이 말하는 중심 의미나 주제이다. 사건을 배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품이 드러내는 핵심 생각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국어 · 2019 · 2월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을 플롯으로 본 점은 맞다.
- 틀린 부분은 ㄴ='왜?'와 ㄷ='그 다음엔?'의 배치이다.
- 실제로는 스토리가 시간 순서를 따라가므로 ㄴ에는 '그 다음엔?'이 들어가고, 플롯이 인과를 따지므로 ㄷ에는 '왜?'가 들어간다.

② O
- ㄱ=플롯, ㄴ='그 다음엔?', ㄷ='왜?'의 대응이 모두 맞다.
- 지문도 스토리는 시간 순서의 서술, 플롯은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 서술이라고 설명한다.

③ X
- 틀린 부분은 ㄱ='테마(theme)'이다.
- 지문은 사건 배열 방식인 스토리와 플롯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ㄱ은 테마가 아니라 플롯이다.
- ㄷ='왜?'는 플롯의 질문이라는 점은 맞지만, ㄴ='언제?'는 스토리를 대표하는 질문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엔?'이 맞다.

④ X
- 틀린 부분은 ㄱ='테마(theme)'이다.
- ㄴ='그 다음엔?'과 ㄷ='왜?'의 배치는 맞지만, 사건 서술 방식 자리에 작품의 주제 개념인 테마를 넣은 것이 틀리다.
- 실제로는 ㄱ이 플롯이어야 전체 대응이 성립한다.

오답 포인트

스토리와 플롯은 모두 사건을 다루므로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거나, 플롯과 테마를 섞어 보는 경우가 많다. 또 스토리의 질문과 플롯의 질문을 서로 뒤바꾸면 ①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비교 대상이 사건의 시간 배열인지, 사건의 인과 조직인지 확인한다. 시간의 흐름만 따라가면 스토리이고,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짜면 플롯이다. 독자가 '그 다음엔?'을 묻게 하면 스토리, '왜?'를 묻게 하면 플롯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스토리는 다음 사건을, 플롯은 사건의 이유를 묻는다.

NoteBase